佛音포교 반세기… '소외계층 위한 또 다른 자비행'


2016년의 송춘희 씨(사진왼쪽)와 1966년 '수덕사의 여승' 당시 송춘희 씨 모습. 외양은 변했지만 불법홍포의 원력은 그대로다.

불자가수 1세대 송춘희 씨, 불교음악 60년 기념집 발매

'인적없는 수덕사의 밤은 깊은데~' '수덕사의 여승'으로 유명한 원로 불자가수 송춘희 씨가 가수인생 60년과 세수 80세를 기념하는 음반을 냈다. 바로 '맘짱'과 '건강이 제일'이다.

'할아버지 쌈짓돈' '노랫가락 차차차' '영산강처녀' 등 그녀의 대표곡은 당시 서민들의 애환을 어루만졌다. 여기에 그녀는 40년간 불자가수로 다양한 찬불가 음반을 발표하고 자비나눔을 실천해왔다. 그런 그녀를 10월 26일 서울 조계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그녀는 80세의 나이에 위암과 디스크 수술 등으로 편치 않은 몸이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아직도 청춘인듯 했다.

미국서 세운 찬불가 포교 원력

1966년 '수덕사의 여승'으로 널리 알려진 송춘희 씨는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수덕사의 여승'을 부를 때까지만 해도 불자가 아니던 그녀는 이 노래를 계기로 불교를 공부하게 된다. 방송과 공연 등으로 쉴 새 없이 바빴지만 법당에만 오면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녀는 말한다. 이런 인연은 1976년 미국에서 광옥스님을 만나며 불법 홍포의 발원으로 꽃피웠다. 당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녀는 찬불가 포교에 나섰다.



1976년 미국서 찬불가 보급 시작
1983년 귀국후 1000여 곡 발표
11월 2일 신촌 거구장서 기념행사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교회를 갑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찬송가 등을 부르며 주말 문화행사로 거듭나고 있죠. 그런데 사찰에 가니 기도만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찬불가를 보급해보자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생활이 일상화 돼서 찬불가가 테이프를 만들면 차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교포들이 쉽게 부처님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찬불가노래를 취입해 배포한 그녀는 1983년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1983년 첫 번째 찬불가 앨범을 시작으로 '법화삼부경' 28품 등 1000여 곡을 내게 된다.

교도소 재소자 · 소년소녀가장 돕기 나서

그녀는 불자가수의 1세대로 꼽히고 있지만 포교사로서의 활동도 활발히 펼쳤다. 5개 군법당을 짓고 매주 군장병들을 만나고 있으며 40년 가까이 교도소 교정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군부대는 일요일마다 가고 있습니다. 맹호 부대 등을 방문해 노래를 부르고 장병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 자주가니 이젠 가족 같아서인가요? 몸이 안 좋을 때 가끔 가지 않으면 장병들이 아쉬움 섞인 말도 하곤 합니다."

이 밖에 영등포 교도소 등 교도소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방문해 재소자들에게도 음성공양을 해왔다.

그녀는 사형수와 장기복역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새로운 발심을 했다. 바로 장기수들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이었다.

"사형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자녀걱정이 있더라고요. 사회에 남겨놓고 온 자식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사연에 이들의 학업만은 이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죄로 자라나는 애들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순 없잖아요."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는 관음보살처럼, 그녀는 따듯한 손길을 내밀었다. 이런 원력에 다양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1991년 백련장학회(白蓮獎學會)를 설립해 소년소녀가장과 불우학생 등 3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송 씨는 소년소녀가장 10남매의 뒷바라지를 했으며 그러다 보니 결혼도 하지 못했다.

"그래도 이들이 자라서 훌륭한 사회 일꾼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보람입니다.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 것도 좋지만, 사람을 키워내는 것도 인생의 큰 보람이죠."

추운 겨울 장학생 중 한명으로부터 첫 월급으로 산 것이라며 빨간 내복을 받았다는 송춘희 씨. 그녀는 이제 그동안 받은 감사패와 음반 등을 모아 작은 기념관을 하나 여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11월 2일 서강대 인근 거구장에서 조촐한 기념행사를 여는 그녀는 진정한 '맘짱'이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작찬불가 최우수상 '우란분재' 선정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공모한 '2016 신작 찬불가 공모' 최우수상에 안승철 씨 작곡, 영심 스님 작사의 '우란분재'가 선정됐다.

조계종은 종령기관인 불교음악원이 주관한 신작 찬불가 공모에 대한 심사결과를 10월 24일 밝혔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우란분재'는 부처님의 자비로 영가를 천도하는 우란분절을 기리며 작곡한 곡으로 심사위원들은 "국악 멜로디가 조화롭게 표현됐으며, 음악적 형태가 가장 잘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우수상에는 이윤정 작곡, 우학 스님 작사의 '팔상성도 이야기'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부처님의 일생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표현한 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려상 3곡, 노랫말 상 1곡 등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7일 오후 4시 서울 봉은사 불교음악원에서 열리며, 수상곡들은 이 자리에서 초연된다.

신성민 기자

"불상,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보라"

서용선 작가의 '색과 공' 특별전, 11월 20일까지

미술과 조각을 넘나드는 행보로 한국 화단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서용선 작가의 새 작품이 눈길을 끈다.

11월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종영미술관서 열리는 '색(色)과 공(空): 서용선' 전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이 그것이다. 부처님의 원초적인 모습을 표현한 조각상을 비롯해 서용선 작가만의 색채가 묻어나는 다양한 회화는 90여 점에 달한다.

서용선 작가(위 사진)는 단종을 비롯한 사육신과 동양신화를 소재로 했던 '역사와 신화', 도시 속 고독한 개인의 단면을 포착해낸 '도시의 군상' 등을 그림으로 그려냈다. 이번 전시에서 서 작가는 망치와 끌, 대패 등을 들고 조각가로 변신했다.

서 작가의 조각가로의 변신은 불교가 매개체가 됐다. 2015년 9월 일본 와카마야현 고야산 곤고부지(金剛峯寺)의 개산 1200주년을 기념한 '생명의 교향' 전에 참가한 서 작가는 일본 현지에서 고야산 삼나무 목재를 활용한 조각작업을 새롭게 시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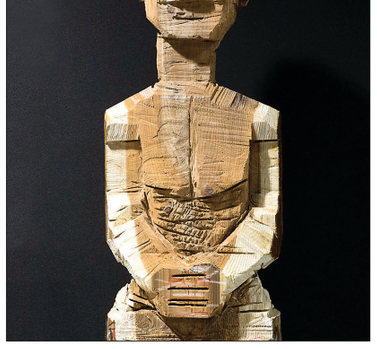
금강경에서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제자들을 모습을 조각으로 나타내게 됐다. 이 작품 20여 점을 비롯해 자신의 생가 모습을 담은 회화, 한글을 활용한 설치미디어 작품 등이 선보인다.

어머니의 깊은 신심에서 불교적 영향을 받은 서 작가. 그는 "인간의 내면성찰 과정에서 보이는 무아지경이 바로 행복"이라며 "번뇌에서 벗어난 순수한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화려하지 않고 아주 소박하고 원초적인 불상에 가까운 조각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외면을 중시하는 우리네 삶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덕현 기자




서용선 작가의 '보살'

추사와 선의 관계를 미술로 표현하다

함평군, 10월 21일 '추사와 선' 특별기획전 개최

전남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10월 21일 '2016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 내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추사와 선' 특별기획전을 개막했다.

추사(秋史) 김정희는 동서 문명 전환기인 19세기에 활동한 학예거장으로, 실학자로서 추사체를 만들어 동아시아 서(書)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말까지 개최하는 이 전시회는 무량수, 백절소통 만규영롱, 백파선사에게, 천기청묘 매화동심, 유애도서겸 고기 차종문자입보리, 죽로지실 등 대자 현판과 서첩 족자의 친필 탁본 30여 점을 전시한다. 추사는 초의 선사 등 불교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유학자인 추사의 불교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살피고, 그 사유체계를 필묵으로 표현했는지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획전은 이러한 추사의 통유(通儒) 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찰현판 걸작 △실사구시 선으로 통하다 △선다일미의 3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국향대전 축제 기간 중 매일 11시부터 2회, 작품설명투어가 진행되며 추사 김정희 작품 탁본 체험도 무료로 진행된다.

함평군 측은 "선(禪)은 유학자 추사의 학예세계를 결정짓는 중핵요소로 추사는 선(禪)과 교(敎)를 하나로 묶는 학문과 예술을 실천했다"며 " 추사를 화두로 호남과 우리나라, 동아시아와 세계를 학예(學藝) 역사와 교육으로 연결하고 함평을 그 중심지역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수행 정진중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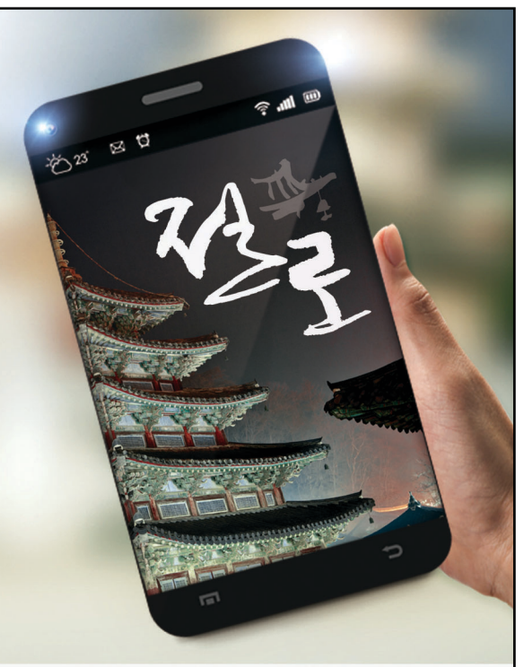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